

Discover More
Information



Create Further
Knowledge



Deliver Better
Solution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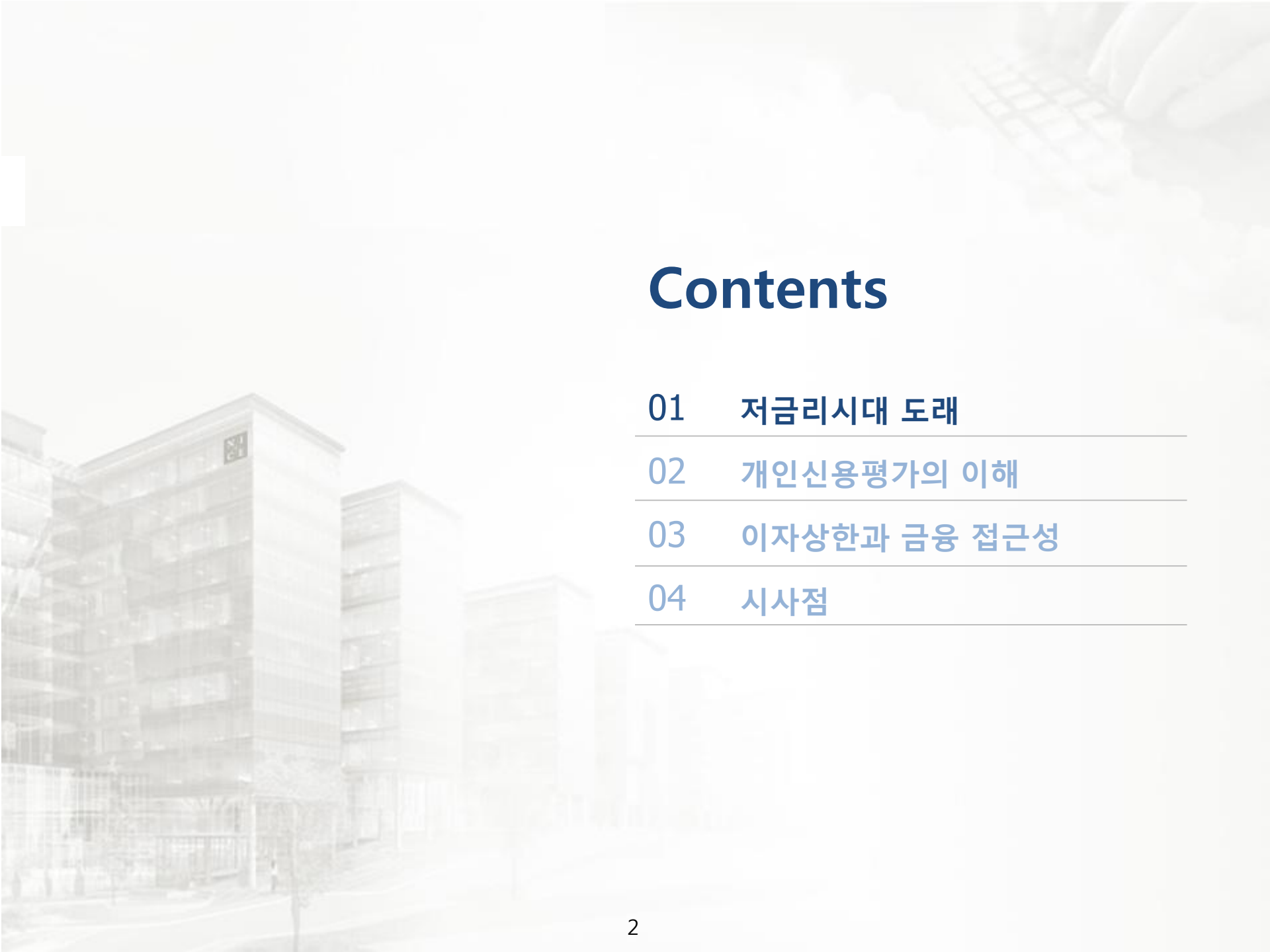


저금리시대의

Financial Planning

2016. 04. 29.

NICE평가정보 CB연구소장 문영배



Contents

01 저금리시대 도래

02 개인신용평가의 이해

03 이자상한과 금융 접근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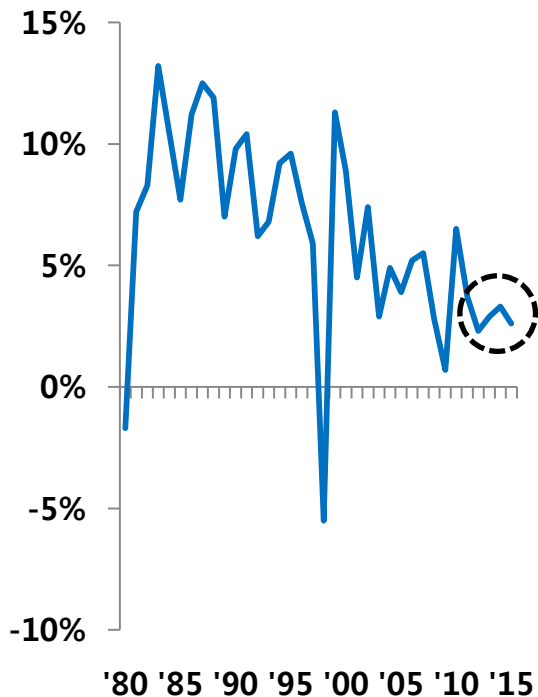
04 시사점

저금리시대 도래

‘뉴 노멀(New Normal)’ 시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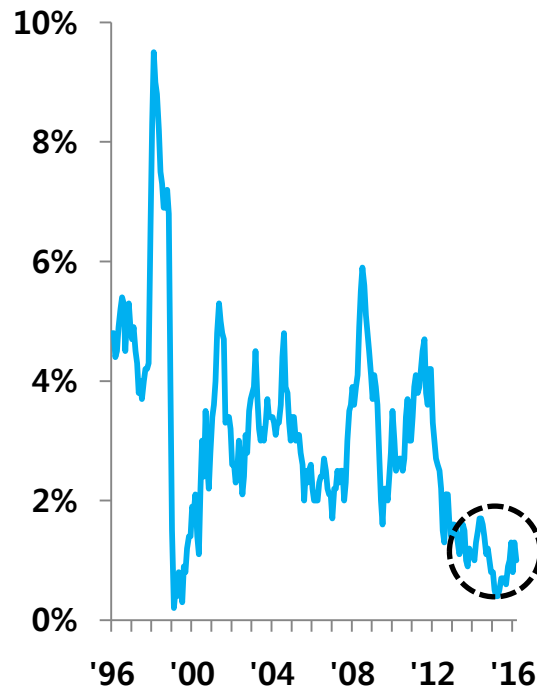
뉴 노멀(New Normal)

저성장



자료: 한국은행

저물가



저금리



저금리시대 도래

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기현상 발생

-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직업은 인류 문명과 함께 출발
- 구약 잠언에 고리대금이라는 말이 등장하며, 삼국사기에도 곡식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기록이 있음
- 전문 용어와 첨단 투자기법으로 포장한 현재의 금융도 그 본질은 '이자놀이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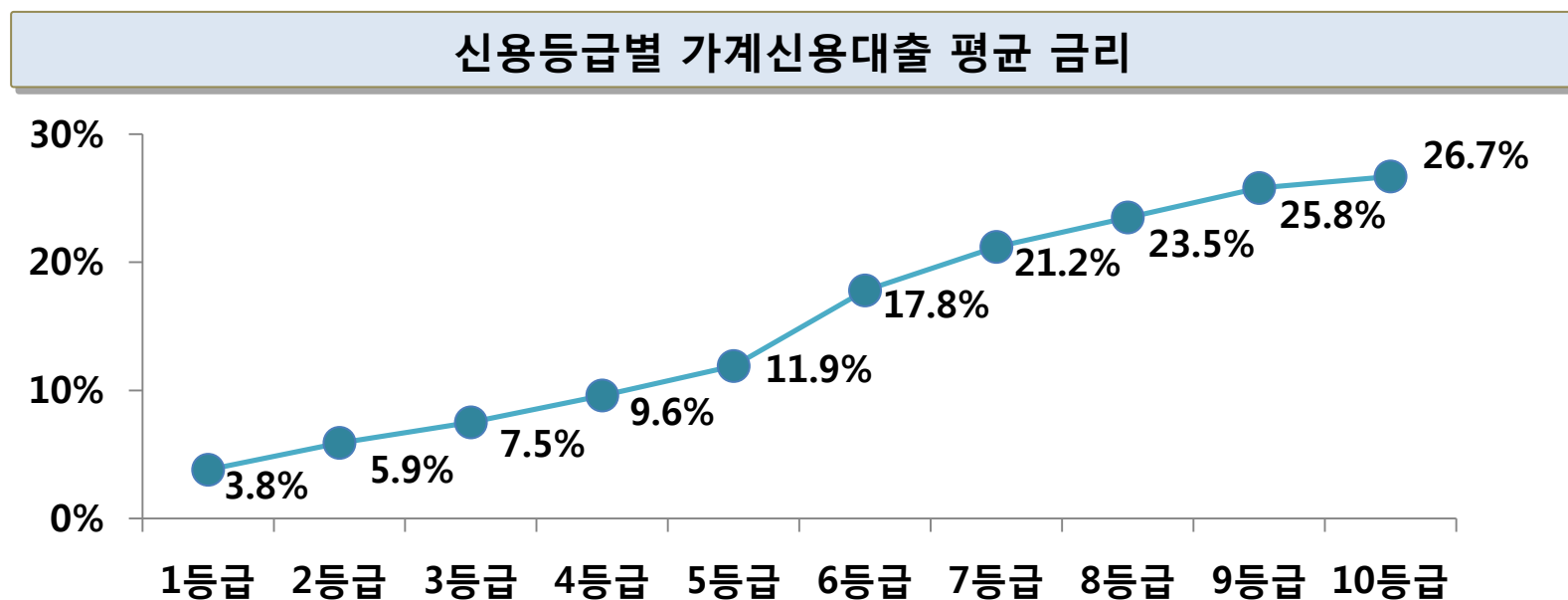
이자수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

- 경기침체 장기화로 시중에 돈이 안 돌아 유럽 중앙은행들은 금융기관들이 돈을 풀도록 압박하기 위해 '마이너스 금리'를 시행
- 2012년 중반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덴마크에서 실제로 '은행 주택대출을 받고도 이자를 받는' 비상식적인 상황이 나타남

저금리시대 도래

돈을 싸게 빌리는 것도 재테크인 시대

- 2015년 3Q말 현재 신용등급별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등급이 3.8%, 10등급이 26.7%로 차이가 22.9%p에 달함
- 신용등급 간 평균 신용대출금리 차이는 2.5%p 내외이며, 최대(5→6등급) 5.9%p까지 차이를 보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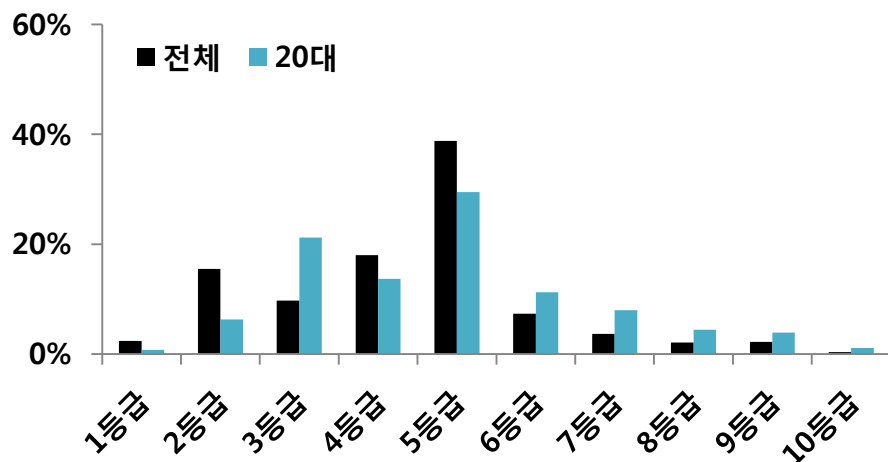
<자료: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('15.12)>

저금리시대 도래

사회초년생에 대한 신용관리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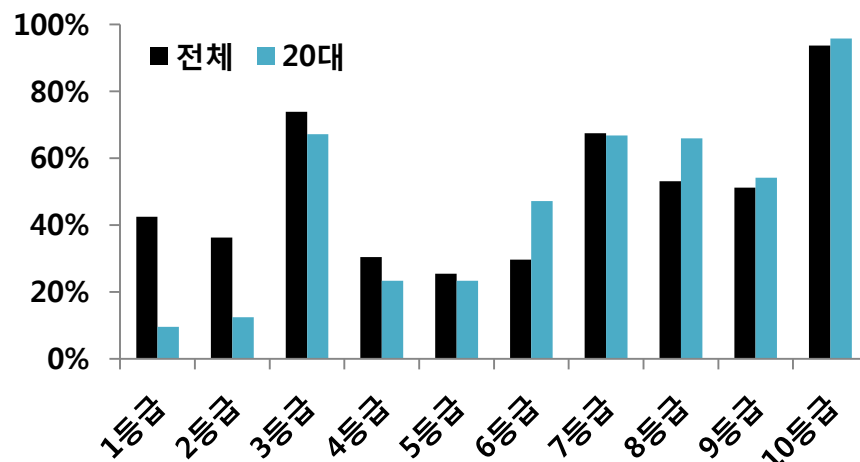
- 사회초년생(20대)의 상위(1~3등급)등급 비중은 28%로 전체와 동일한 반면, 하위(7~10등급)등급 비중은 전체에 비해 9%p 높은 17%임
- 신용등급별 가계대출보유 비율도 하위등급에서 사회초년생이 전체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

신용등급별 비중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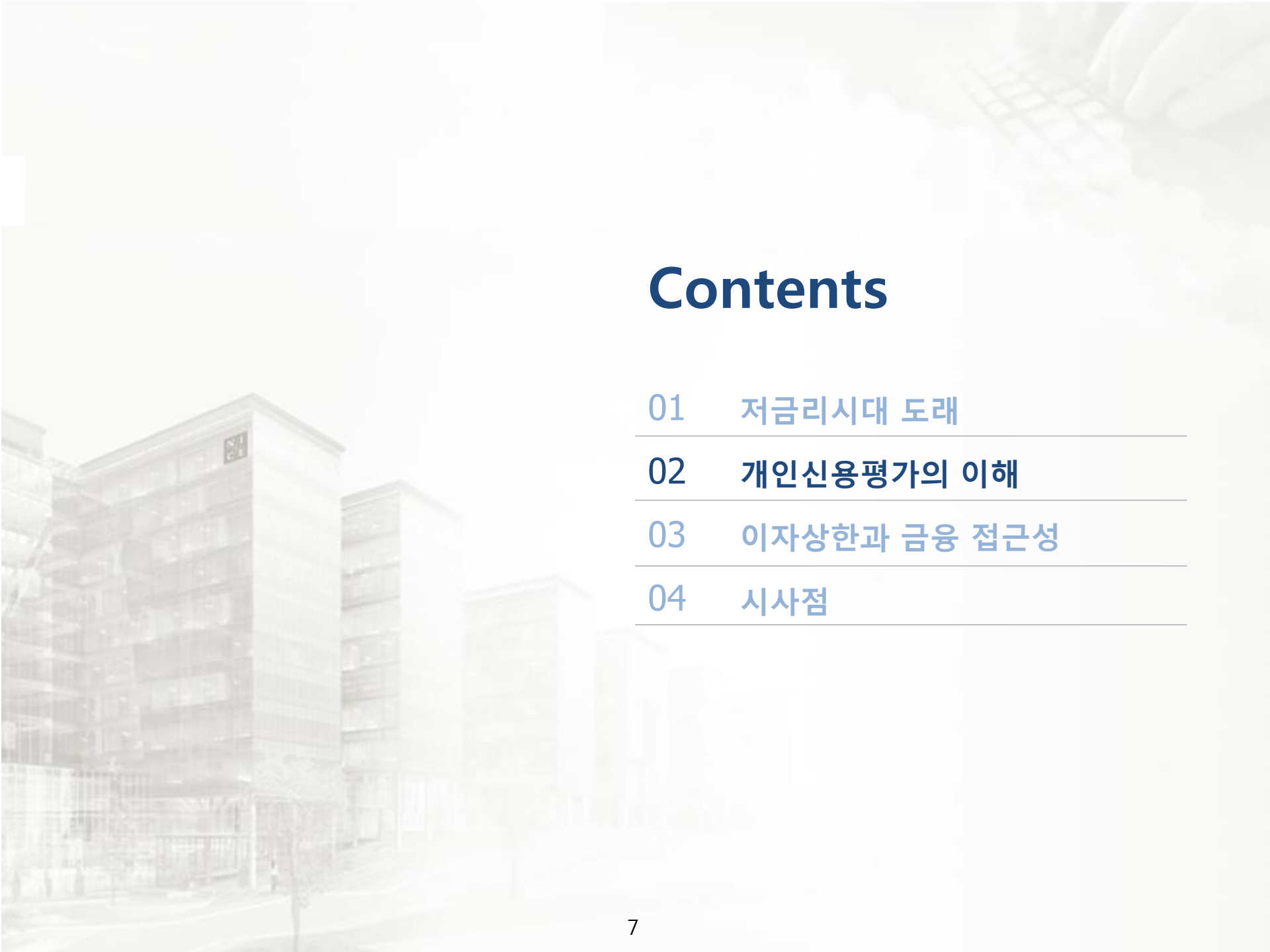


주: 2016년 3월말 현재
<자료:NICE평가정보>

신용등급별 가계대출 보유 비율 비교



주: 2016년 3월말 현재
<자료:NICE평가정보>



Contents

01 저금리시대 도래

02 개인신용평가의 이해

03 이자상한과 금융 접근성

04 시사점

개인신용평가의 이해

신용정보 부족 차주는 전국민의 4명 중 1명

- 유효한 금융거래 정보가 없어 적절한 신용평가를 하기 어려운 대상자(신용정보 부족군, 이하 Thin filer)는 전국민 중 26.9%에 달함

전국민의 신용정보 보유여부에 따른 구분

구분	정의	구성비	특징
신용정보 부족군 Thin filer	최근 유효한 금융거래 정보가 없거나, 금융거래 기간이 짧음	26.9%	신용활동이 적은 20대 혹은 70대 이상이 많음
신용정보 보유군 Thick filer	유효한 금융거래 정보가 있음	73.1%	경제활동 활발한 30~50대가 많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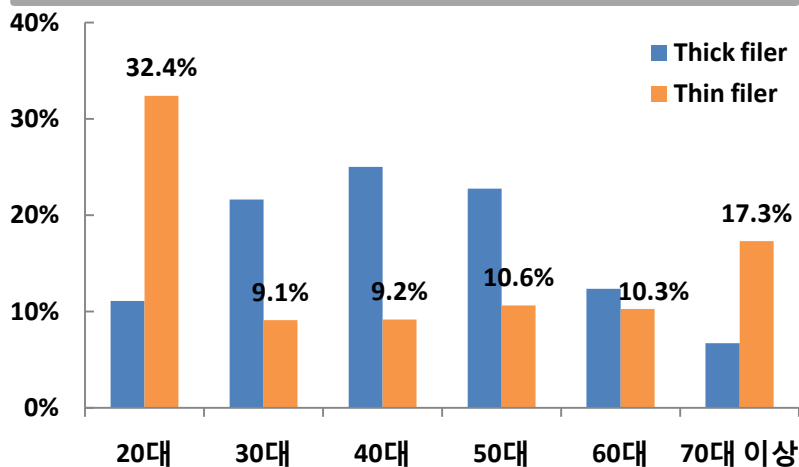
<자료: NICE평가정보, 2014.12.31 기준>

개인신용평가의 이해

신용정보 부족자 중 사회초년생 비중이 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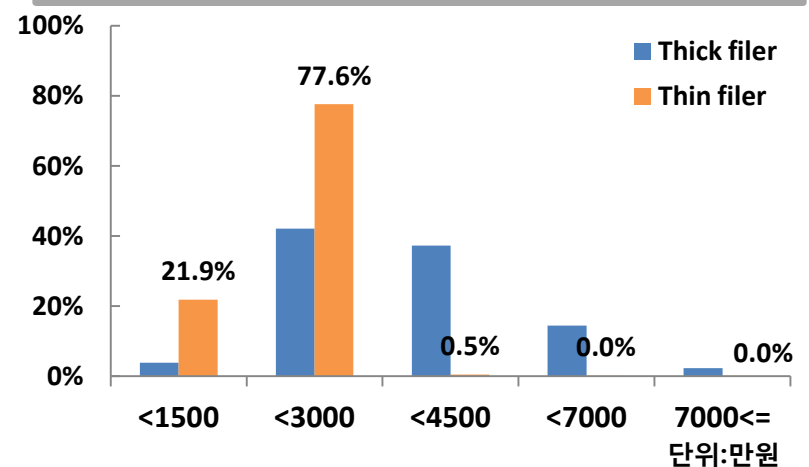
- Thin filer는 아직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이 많은 20대의 비중이 컸으며, 경제활동이 적은 70대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
- NICE 추정 소득구간에 따르면 Thin filer는 3천만 원 미만 구간의 비중이 큰 반면, Thick filer는 3천만 원 이상 구간의 비중이 컸음
- Thin filer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

중위등급자의 신용정보 보유여부별 연령분포



주: 2016년 2월말 중위등급자 기준
<자료: NICE평가정보>

중위등급자의 신용정보 보유여부별 소득분포



주: 2016년 2월말 중위등급자 기준, 소득은 NICE 추정소득
<자료: NICE평가정보>

개인신용평가의 이해

신용정보부족 사회초년생의 신용등급 변화

- 2011년 말 신용정보 부족자(311.8만 명) 중 2016년 2월말 현재 신용 보유군 (178.4만 명)은 57.2%

311.8만 명
[2011년 말]

2011년말 현재 20대 중 신용정보 부족자

사회초년생

(178.4 만 명)

42.5%

132.6만 명
[2016년 2월말]

31.1%(96.9만 명)

상위(1~3등급)등급

19.9%(62.0만 명)

중위(4~6등급)등급

6.3%(19.6만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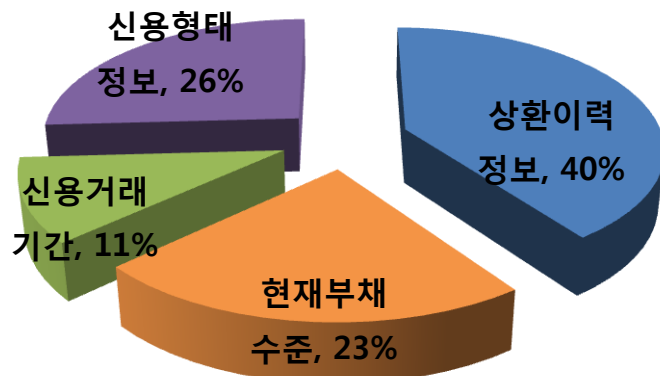
하위(7~10등급)등급

개인신용평가의 이해

신용정보에 기반한 개인신용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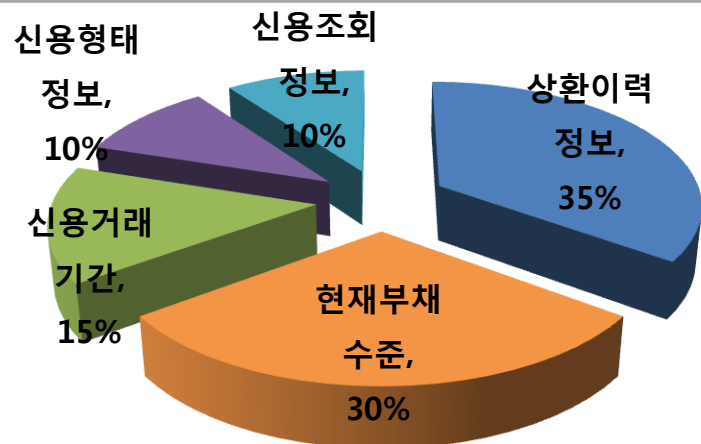
평가 요소	평가요소의 상세내용
상환이력정보	현재 연체보유 여부 및 과거 채무상환 이력
현재부채수준	채무부담 정보(대출 및 보증 채무 등)
신용거래기간	신용거래 기간(최초/최근 개설로부터 기간)
신용형태정보	신용거래종류, 신용거래형태(상품별 건수, 활용 비중)
신용조회정보	신규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활동 정보(조회건수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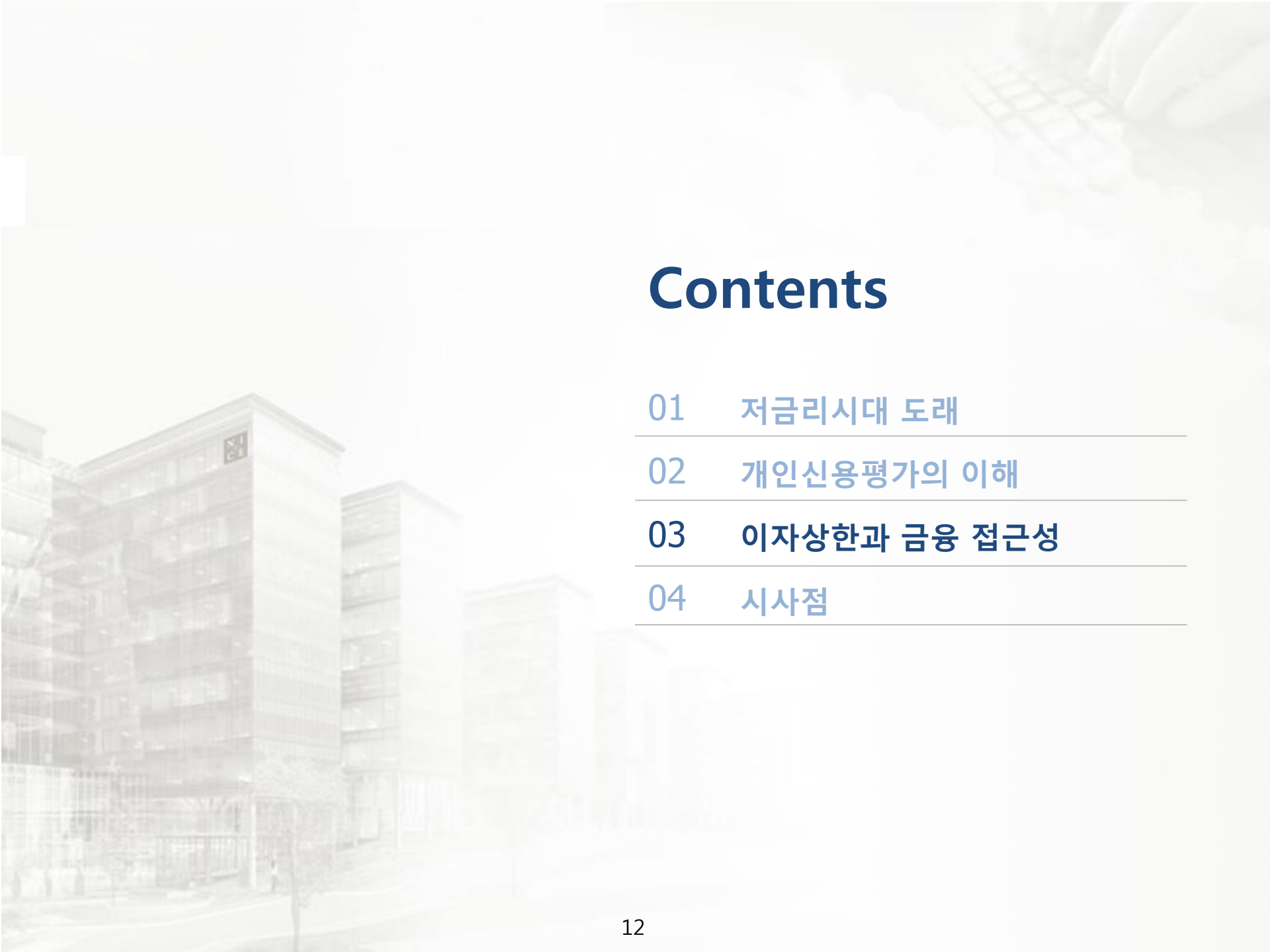
국내 개인신용평가 요소 활용비중



<자료: NICE평가정보, 홈페이지>

해외 사례: 미국 FICO





Contents

01 저금리시대 도래

02 개인신용평가의 이해

03 이자상한과 금융 접근성

04 시사점

이자상한과 금융 접근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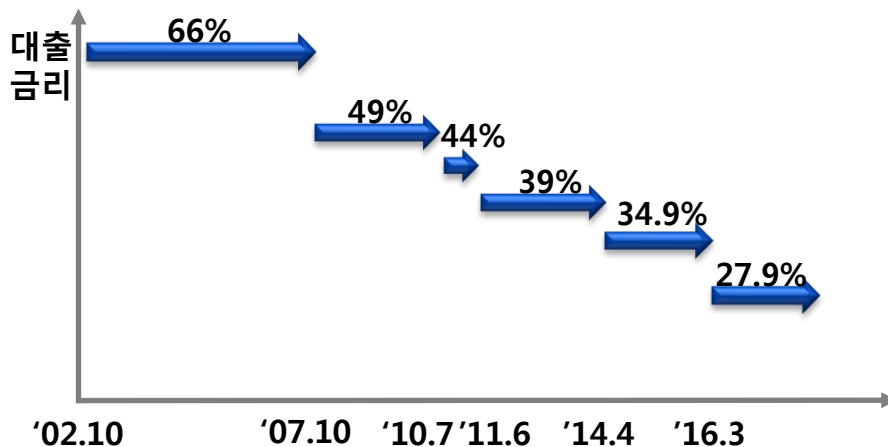
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인하

-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(약칭 대부업법) 개정으로 최고금리가 연 34.9% → 27.9%로 인하*

*법률 제14072호(2016.3.3)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·제2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[일몰법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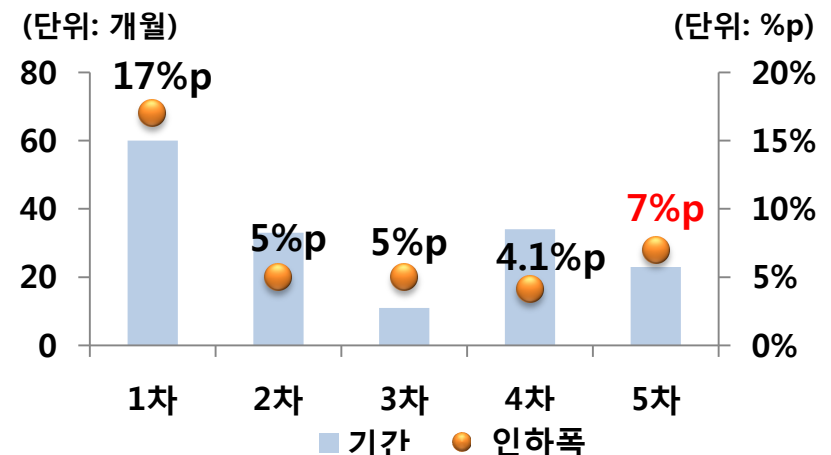
- 제8조(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):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(小)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.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
- 제15조(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):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.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<신설 2016.3.3>

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추이



<자료: NICE평가정보, 법제처>

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폭



<자료: NICE평가정보>

이자상한과 금융 접근성

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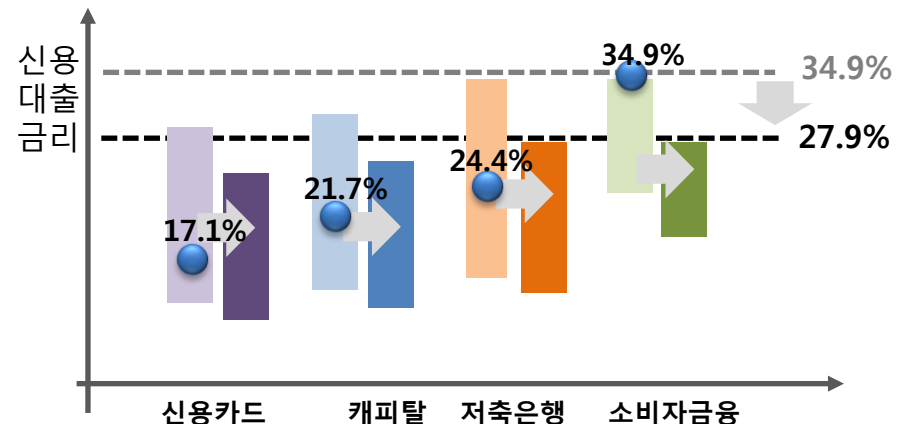
-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대출 (금리 25% 이상) 비중은 각 업권별로 12.2~99.6%
-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7%p(34.9%→27.9%) 인하로 신용카드, 캐피탈, 저축은행, 소비자금융 업권 모두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임

업권별 신용대출금리 구간 비중

구분	은행	상호금융	보험	신용카드사	캐피탈	저축은행	소비자금융
< 5%	72.7%	29.3%	15.2%				
5~10%	24.6%	70.6%	56.2%	13.3%	2.4%	3.5%	
10~15%	2.7%	0.1%	26.5%	20.0%	9.1%	6.9%	
15~20%			2.1%	41.0%	25.6%	12.5%	0.1%
20~25%				13.5%	35.0%	18.4%	0.3%
25~30%				12.2%	27.9%	47.5%	1.9%
30% <=						11.2%	97.7%

<자료: 각 협회 및 중앙회 공시자료, NICE평가정보>

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구간 변화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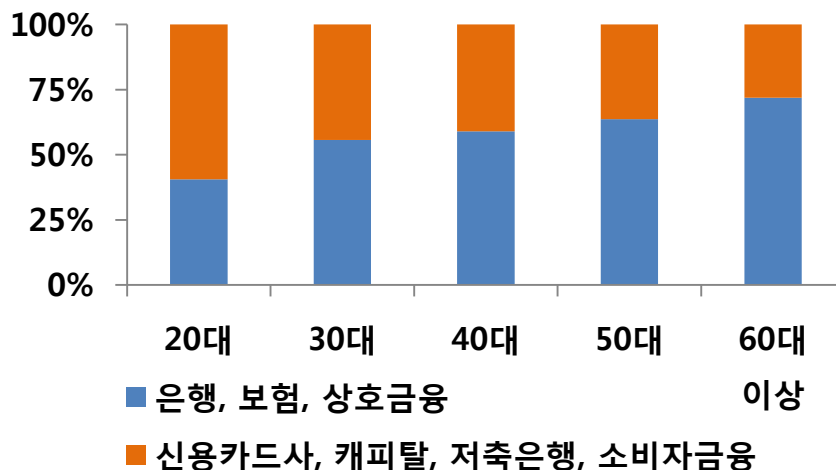
<자료: 각 협회 및 중앙회 공시자료, NICE평가정보>

이자상한과 금융 접근성

사회초년생의 금융 접근성 저해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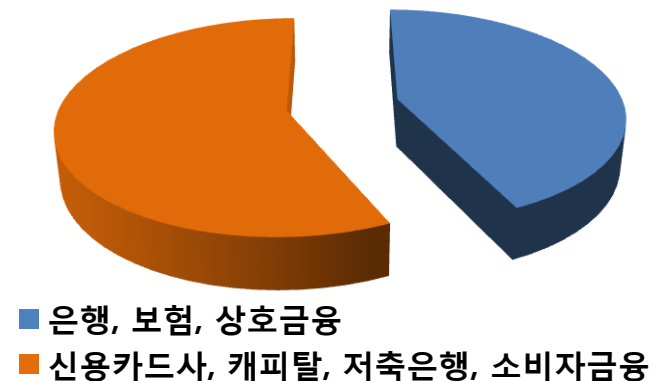
- 신용성 대출(카드론 및 신용대출) 보유 수준을 연령별로 살펴보면, 20대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신용카드사, 캐피탈, 저축은행, 소비자금융 대출 보유 비중이 여타 연령대에 비해 높음
- 사회초년생의 경우도 신용카드사, 캐피탈, 저축은행, 소비자금융 등의 신용성 대출 비중이 높아,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접근성 저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

연령별 신용성 대출 보유 비중



<자료: NICE평가정보>

사회초년생 신용성 대출 보유 비중



주: 사회초년생은 2011년말 20대 신용정보 부족자 중
2016년 2월말 현재 신용정보 보유자(178.4 만 명)

<자료: NICE평가정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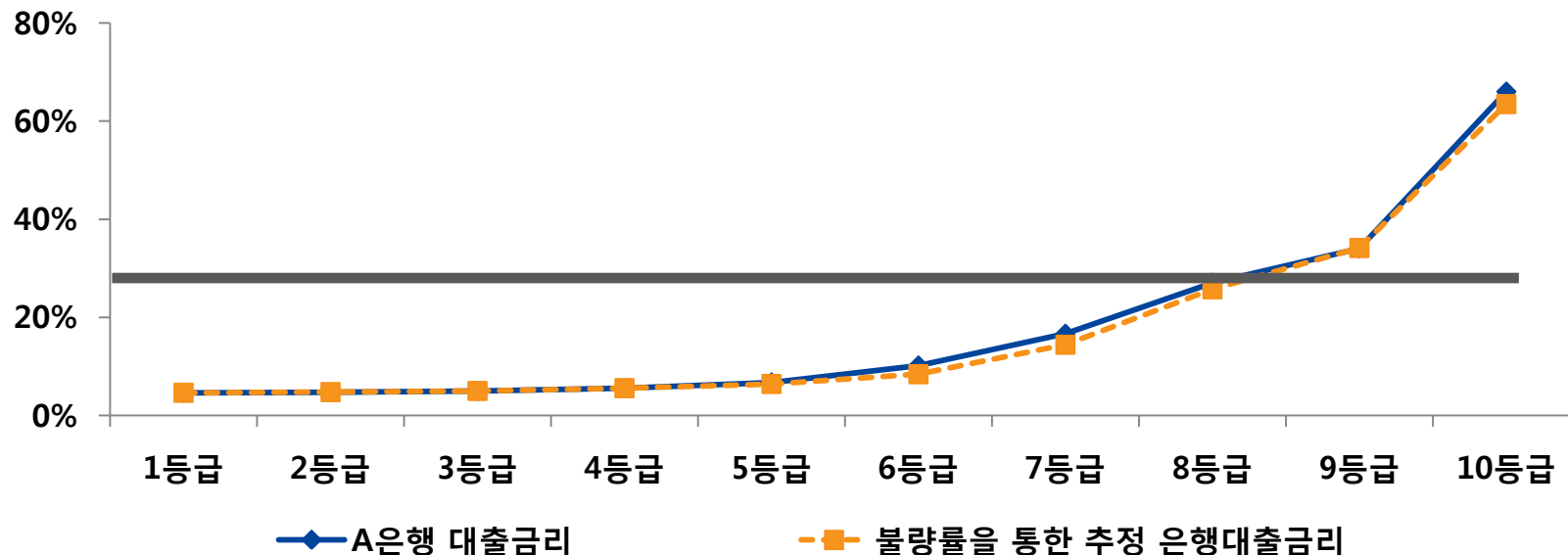
NICE 평가정보 CB연구소 NICE

이자상한과 금융 접근성

[공급측면] 금리상한 설정 및 인하는 공급감소를 야기

- 이자율 $\geq$ 조달금리(market interest rate)+ 이윤율(margin)+운영비용(operation cost)+대손율"이면 대출 실행
- 고정비용으로 인해 소액대출은 고비용 대출이 될 수밖에 없으며, 주 고객층인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대손율이 높아 고금리 부과

업권별 신용대출금리 구간 비중



주: 1) 자금조달비용 등 3.02%, 마진 1.5%로 가정
2) 불량률은 은행 온라인 조회 대상자의 12개월 내 불량률
<자료:박창균(2014), NICE평가정보>

이자상한과 금융 접근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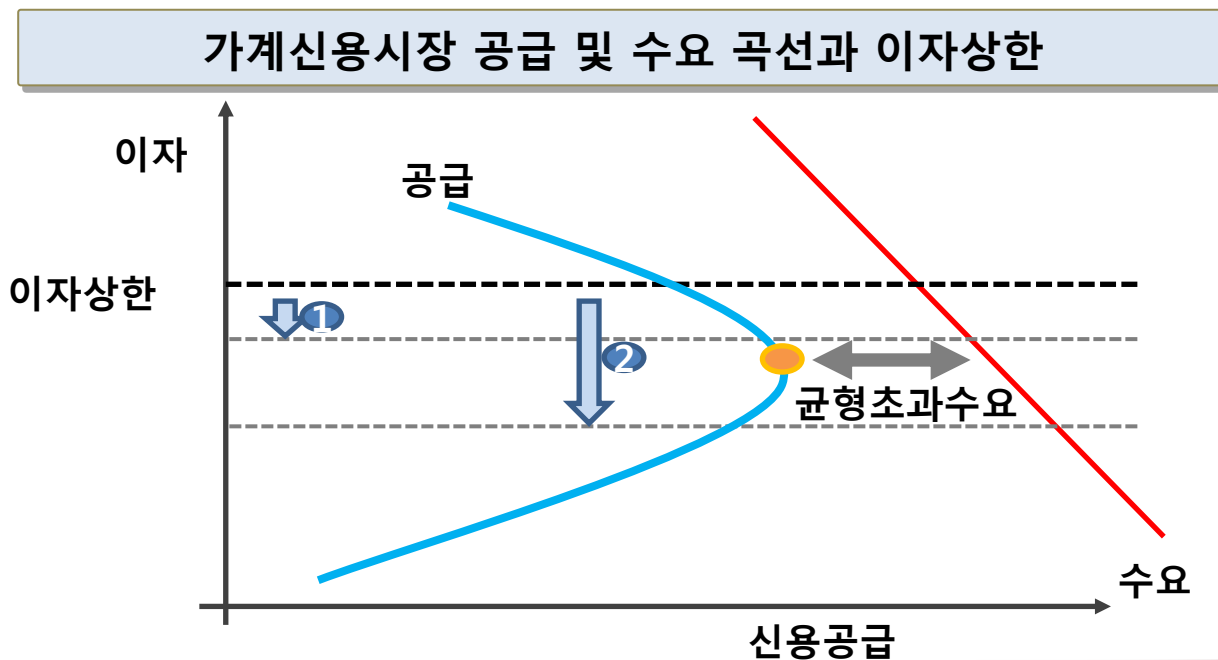
[수요측면] 가정에 따라 이자상한이 금융소비자 후생이 미치는 영향 상이

-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소비자를 가정한 고전적 분석들에서는 이자상한 설정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저축/차입 결정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
 - 차입은 미래 소득을 미리 쓰거나 일시적 소득 감소 충격에 대응하는 수단
 - 고금리 감수 여부는 금융소비자별 선호에 의한 결정에 따른 결과
- 행동편의(Behavioral Bias)을 가정한 행동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이자상한의 설정 및 인하로 특정 소비자를 신용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
 - 소비-저축, 차입 결정에서 체계적 오류(미래소득에 대한 낙관, 낮은 금융이해도, 금융기관의 공격적 마케팅)가 지속
 -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이자상한으로 인한 신용공급 축소는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

이자상한과 금융 접근성

신공공급 및 수요 곡선에 따른 신용할당(Credit Rational) 발생

- 이자상한이 인하되면 이자수입이 줄지만, 신용위험이 낮은 차주가 시장에 유입되어 대출 포트폴리오의 평균 위험이 낮아져 대손비용도 감소
- 이자상한 인하로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것보다 위험하락으로 인한 비용감소가 큰 지점까지는 신용공급이 늘어나지만, 균형이자율 이하로 이자상한이 인하되면 신용공급이 감소하게 됨



<자료: 박창균(2014)>

이자상한과 금융 접근성

이자상한 인하의 영향으로 신용공급이 저신용자 중심으로 축소

- 이자상한 인하로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은 확대되는 반면,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은 축소

-저축은행과 소비자금융 업권은 카드사, 캐피탈로 부터 대출이 거절된 중위등급의 유입으로 이들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

이자상한 구간별/업권별 신규 가계대출자의 신용등급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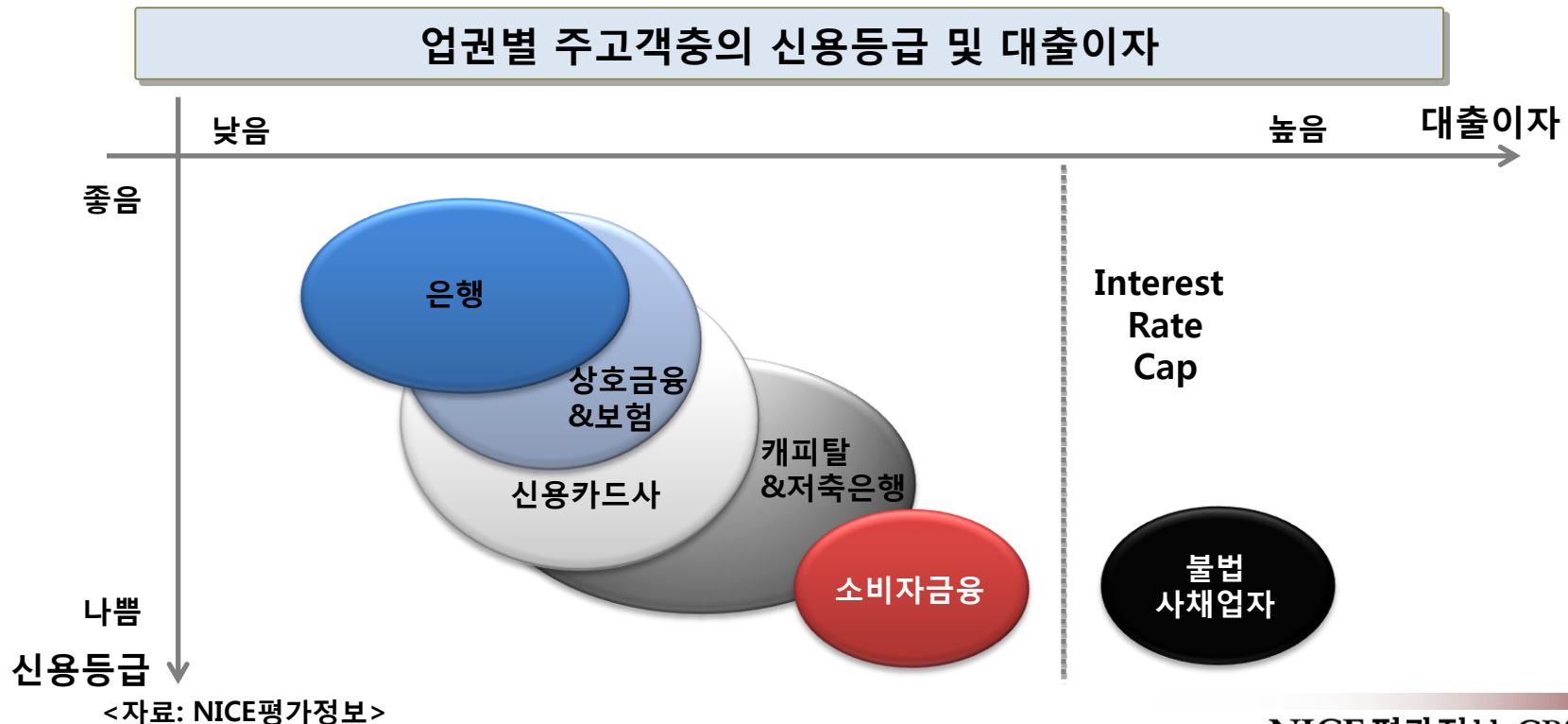
구분		49%->44%	44%->39%	39%->34.9%
카드사	상위등급	1.1%p	5.8%p	3.6%p
	중위등급	-1.4%p	-3%p	-1.1%p
	하위등급	0.3%p	-2.8%p	-2.5%p
캐피탈	상위등급	1.8%p	3.5%p	8.9%p
	중위등급	-1.4%p	0%p	-1.9%p
	하위등급	-0.4%p	-3.5%p	-6.9%p
저축은행	상위등급	-1.7%p	-0.1%p	0.6%p
	중위등급	-1.3%p	6.8%p	-1.2%p
	하위등급	3%p	-6.7%p	0.7%p
소비자금융	상위등급	0.1%p	0.2%p	0.5%p
	중위등급	0.2%p	6.9%p	3.7%p
	하위등급	-0.3%p	-7.1%p	-4.2%p

<자료: NICE평가정보>

이자상한과 금융 접근성

금융소비자의 불법사금융 유입 가능성

- 이자상한 이하로 가계대출시장 및 대부시장에서 구축된 금융소비자는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큼
 - 불법사금융시장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나, 시장 규모에 관해서는 이견이 큼



이자상한과 금융 접근성

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자상한 인하 찬성 vs 반대

- 이자상한 인하 문제를 두고 '유지해야 한다'는 입장과 '낮춰야 한다'는 의견이 대립
- 이자상한 인하 찬성은 고금리로 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, 이자상한 인하 반대는 신용공급 축소로 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, 양측 모두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목적

[이자상한 인하 찬성]

- 고금리 차입자의 피해 축소
- 고금리에 따른 역선택 우려 감소
- 고신용자 시장 유입 확대
- 경제적 효율성 증가

금융
소비자
보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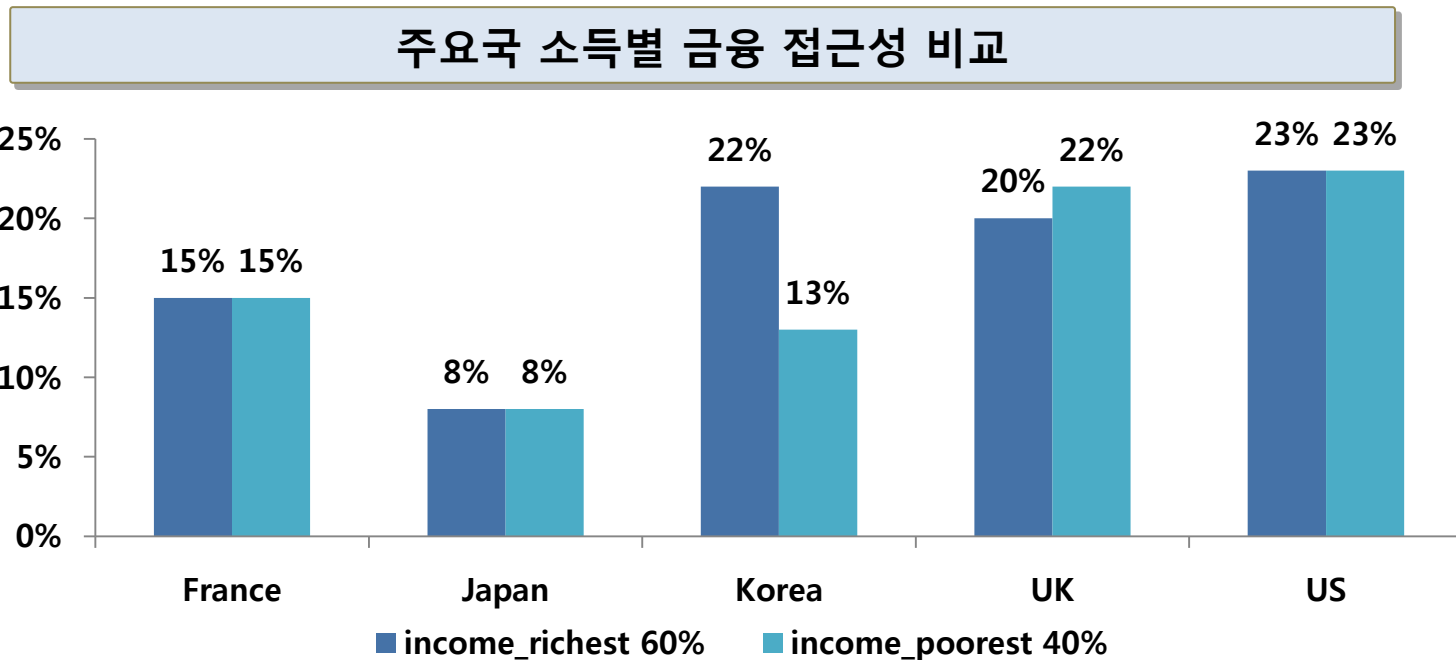
[이자상한 인하 반대]

- 저신용자의 신용접근 방해
- 영세 대부업자의 수익성 저하와 폐업
- 불법 사금융 확대
- 시장 경쟁 저해

이자상한과 금융 접근성

이자상한 수준에 따른 금융 접근성 차이

- 이자상한 수준이 높은 영국과 미국은 소득에 상관없이 금융 접근성이 높은 반면, 이자상한 수준이 낮은 일본과 프랑스는 소득에 상관없이 금융 접근성이 낮음
- 우리나라는 고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이 높은 반면,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



<자료: World Bank>

이자상한과 금융 접근성

일본의 이자상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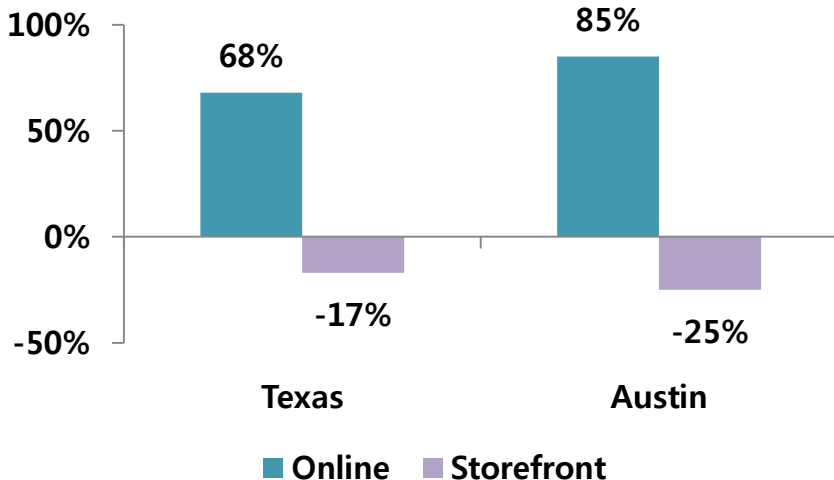
- 일본의 경우 대금업자 최고 이자율은 56년에 걸쳐 109.5%에서 20%로 인하
-109.5%('54)→ 73%('83)→54.75%('86)→40%('91)→29.2%('00)→20%('10)
-이자율 인하 추진 시 단계별로 10여 년의 경과를 보아가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
- 충분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상한 인하 이후 중소기업인들의 자금 사정 악화 등 부작용 초래
-이자율 상한이 29.2%에서 20%로 인하한 이후, 대부등록업체 수 90%가 폐업
 - 등록 대부업체 수: 29,711개('00)→ 14,236('06) →2,256개('12)
 - 대출잔액: 47,6조엔('00)→41.4조엔('06)→24.6조엔('12)
- 연 300%의 불법 사채업체의 등장, 영세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 부작용 야기
- 부작용으로 인해 각 정당은 이자율 상한 인상 등 규제완화를 위한 대금업법 재개정의 움직임을 나타냄

이자상한과 금융 접근성

미국의 이자상한: Payday Loan을 중심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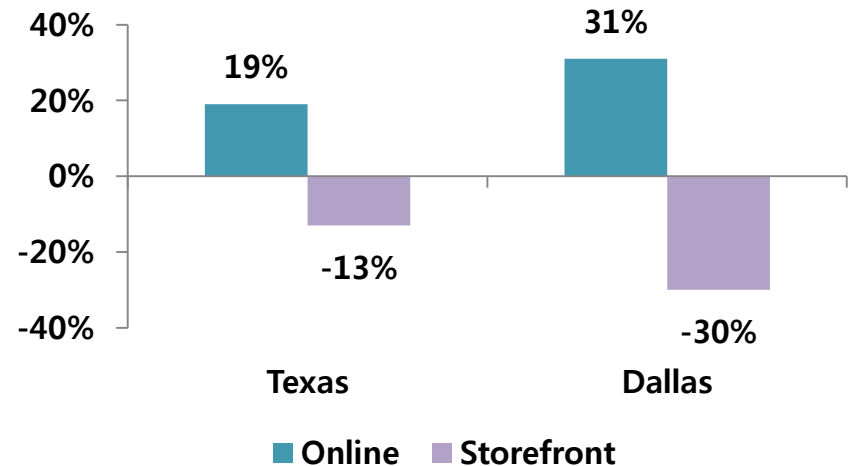
- 미국의 많은 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초단기 대출시장(Payday Loan)에 대한 규제를 강화
- 하지만 법 규제 강화로 대출공급이 제한되더라도 대출수요는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
- 2012년 6월 법 규제가 강화된 달라스시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

법제도 강화 후 초단기대출시장 변화: 오스틴



주: 2011.1.1~2012.12.3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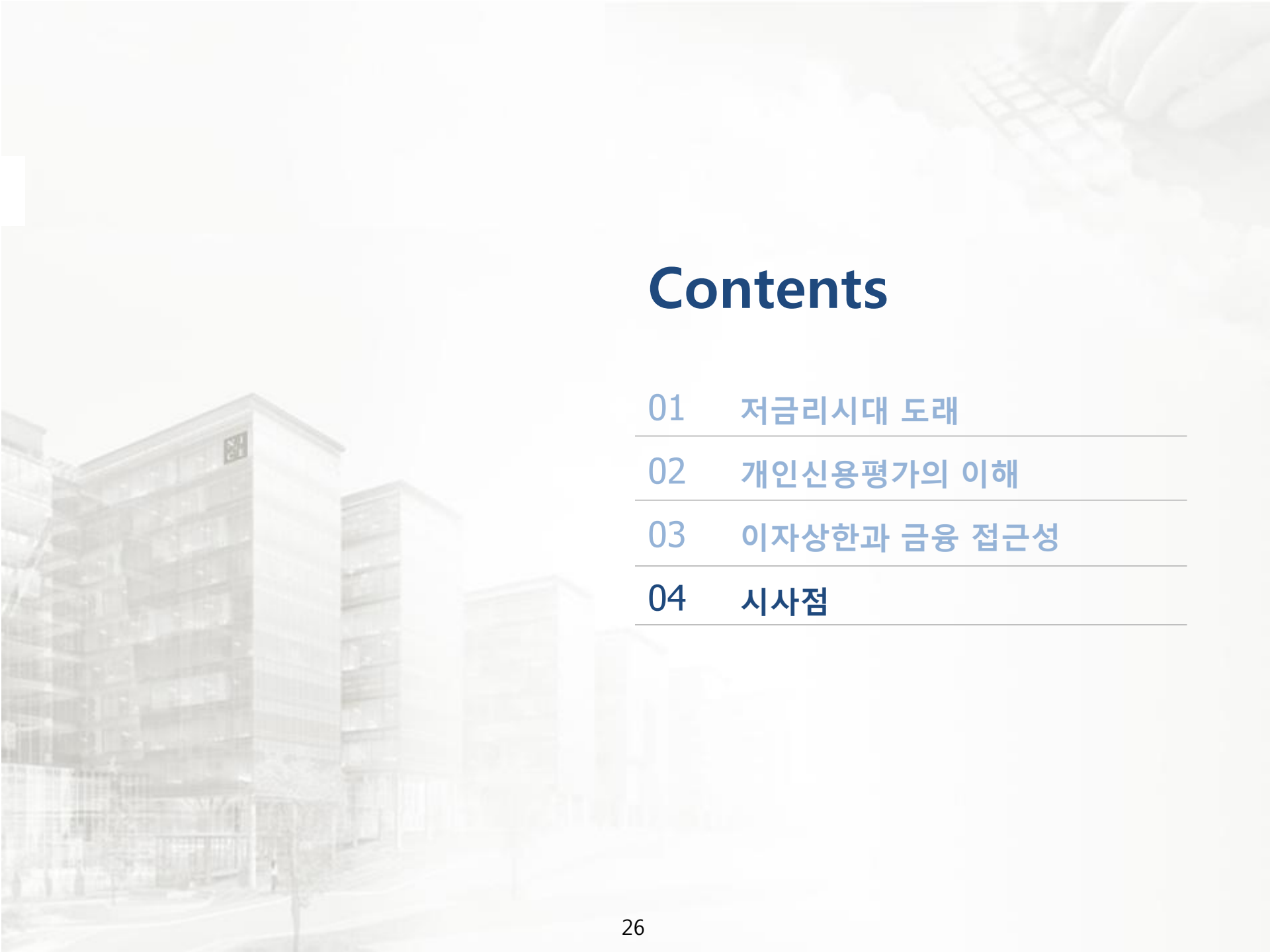
법제도 강화 후 초단기대출시장 변화: 달라스



주: 2012.6.17~2013.06.16

이자상한과 금융 접근성

- 이자상한보다는 리스크에 따라 다양한 금리상품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(시장 경쟁 촉진 필요)
 - 사회초년생의 시장 구축을 최소화하는 한편, 이자경감 혜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
- 이자상한을 인하해야 하는 경우 단계적, 점진적 접근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도록 해야 함
 - 대부시장 축소와 금융소외현상 증가, 불법사금융 피해 확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이자상한 인하를 우선 추진함으로써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필요
 - 심지홍(2014) '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'에 따르면 불법 사채업자 이용 사유 중 절반 이상(51.2%)이 '달리 대출 받은 곳이 없어서'로 응답
 - 대부상품의 저금리 대체를 위해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, 대부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대출원가를 낮추도록 유인함으로써 추가 이자상한 인하여력 확보를 도모
 -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 강화를 통해 현재 이자상한의 실효성을 제고



Contents

01 저금리시대 도래

02 개인신용평가의 이해

03 이자상한과 금융 접근성

04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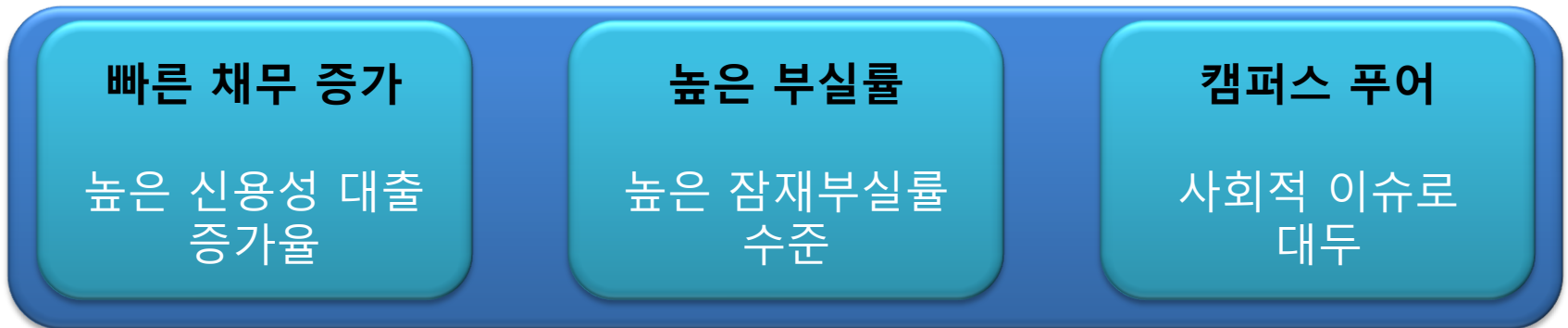
시사점

- 금융감독원 금융이해력 조사(2015년 1월말)에 따르면 청년층인 20대는 미래 대비 재무설계 등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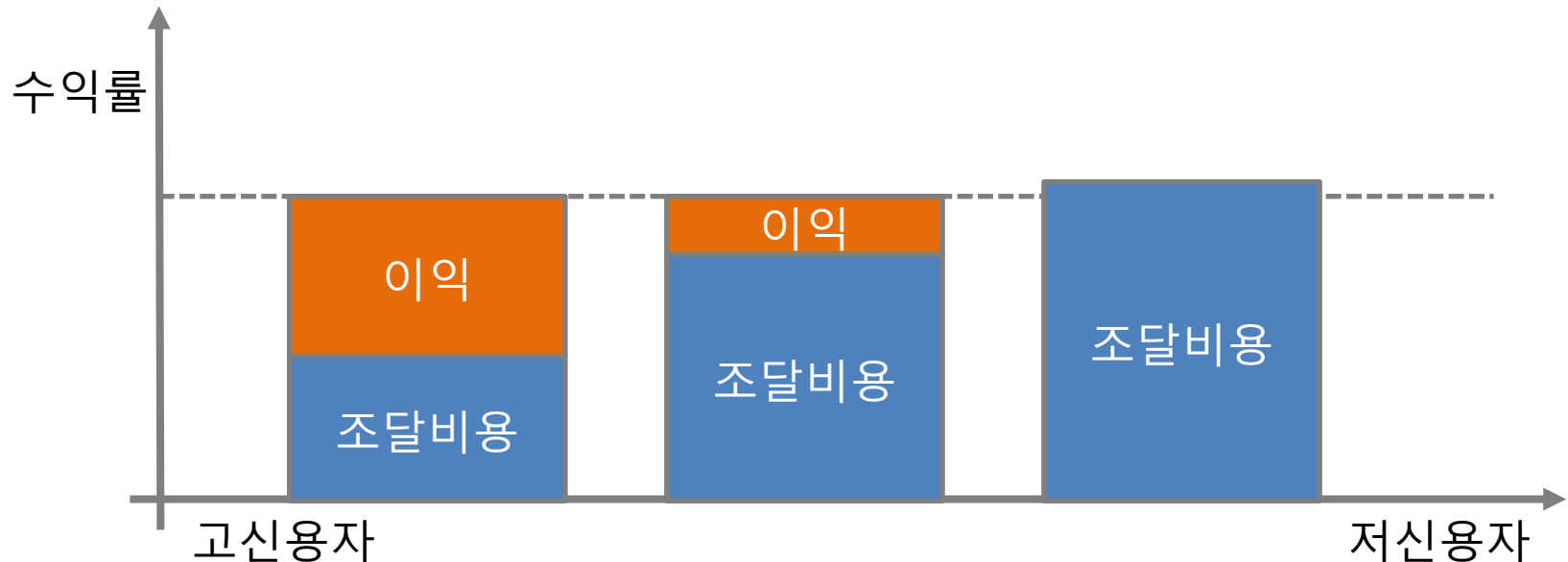
금융교육의 학습효과는
고령층 다음으로 높았음

-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신용위험 가능성도 여타 연령층에 비해 높아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



시사점

- 저금리의 영향으로 돈을 싸게 빌리는 것도 재테크인 시대
- 이자상한 인하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은 저신용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큼
-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수준을 보이는 사회초년생이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건전한 신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용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임



감 사 합 니 다



NICE평가정보
CB연구소